

“각화농산물 도매법인 320억 부당이득 쟁겨”

농수산물 출하자에 하역비 명목 10년간 부과 ... 관리감독 철저를

이정현 광주시의원 의혹 제기

광주각화농산물시장 도매법인이 지난 10년간 농수산물 출하자들에게 하역비 명목으로 수백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이정현(광산 1) 시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라는 별도의 부담을



이정현(광산 1) 시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라는 별도의 부담을

출하자에게 부과해 지난 10년간 3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42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선 안 된다.

하지만 도매법인 측은 도매시장 연간 평균 매출액(3200억원)의 1.1%인 32억원 가량을 하역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챙겼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정현 의원은 “도매법인들은 시 조례에 따라 최대 7%의 상장수수료 외에 어떤 돈도 받을 수 없는데도, 출하자로부터 별도의 하역수수료를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 조례에 따라 하역비 없이 7%의 상장수수료

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시는 해당 도매법인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관해왔다”며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 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도내 1인 소방지구대 처우 개선해야”

송형곤 전남도의원 강조



하고 남은 96억원을 인력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건설소방위원회·고흥1·사진)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결원 뿐 아니라 1인 소방지구대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도내 소방서에 대해 “그들의 처우를 헤아려 소방역할에 만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제300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소방본부 추경심사에서 “도내에는 1인 지구대 근무지역이 많고 결원 인력도 상당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로부터 8월쯤 내려온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장비 교체 및 노후 시설물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집행

송 의원은 “원칙적으로 교부세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나 전남의 열악한 특수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소방대원들이 본연의 소방업무에 만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소방서 미설치 군은 무안 등 10곳에 이르고, 이중 장거리 오지에는 1인 소방지구대가 운영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 리을설 장례식 국장으로

북 리을설 장례식 국장으로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國葬)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날 장례식엔 리을설의 국가장외위원장을 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비서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부패익명신고 10건중 1건만 비위사실 확인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남도가 공무원 비리를 적발하고자 도입한 부패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10건 중 1건만 비위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가 공직 비위와 관련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부패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 지 10개월 가량이 지난 9월말 현재 투서·진정 등 공직 비위 의혹은 모두 20건이 접수됐다.

신고유형은 시험 부정과 보조사업 횡령 2건, 금품·향음 수수와 선거 개입, 물품공급 각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전남도는 신고된 의혹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18건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내부 종결했다.

부패익명신고시스템은 스마트폰(QR코드)에 접속하거나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익명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면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시스템 관리업체인 ‘레드휘슬’ 누리집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공금 횡령, 금품 등 수수, 부당한 예산 집행 등 공무원의 업무상 모든 부패행위다.

민원이나 단순한 불만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만 전남도 감사관실로 실시간 전달되며, 신고자는 처리 결과를 별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접수 번호와 비밀 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경로당 22곳 복지 ‘사각지대’

이용 인원 적어 미등록 ... 냉난방비 등 지원 못받아

광주지역 일부 경로당이 이용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미신고 경로당은 광산구 17곳을 비롯해 ▲동구 2곳 ▲북구 2곳 ▲서구 1곳 등 모두 22곳에 이른다. 미신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은 230여명이다.

각 지자체에 등록된 경로당에는 냉난방

비, 양곡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671만원이 지원되지만 미신고된 경로당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 등록을 위해서는 이용 인원이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20㎡(6.05평) 이상의 거실과 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지역 등록 경로당은 ▲동구 38곳 ▲서구 242곳 ▲남구 74곳 ▲북구 55곳 ▲광산구 173곳 등 모두 1279곳이다. 등록 회

원 수는 4만7627명이다.

광주의 한 미등록 경로당 회원인 김모(72)씨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가족이나 운영비 마련도 어려운데 지원마저 안 되니 이런 이종고가 따로 없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개정, 미등록된 경로당 이용자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호남미래포럼 광주서 간담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한갑수)이 12일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에서 2015년 광주·전남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럼 활동과 2016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정치성, 비당파성을 견지하면서 호남 시·도민의 의견을 종합해 중앙정부와 사회 각계에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지역미래 동력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무원 범죄, 음주운전·교통사고 ‘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남도 공무원 범죄의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12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남도로 통보된 공무원 범죄는 모두 45건이다.

이 중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각 10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 4건, 금품·

향음 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직무유기 등 각 3건, 폭행 2건, 선거법 위반 1건 등이다.

전남도는 음주운전 7건, 교통사고와 폭행, 선거법위반 각 1건에 징계 또는 훈계조치했다. 7건은 현재 조사중이며 3건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나머지 25건은 혐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원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의원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